

## [ 동부권 ]

# 내년 여수 세계 불꽃축제 없어지나

내년 여수 '세계 불꽃경연대회' 개최 여부가 여수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불투명해졌다.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 115회 정례회에서 '국제기후보호시범도시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정에 역행된다'는 이유로 내년도 세계불꽃경연대회 행사지원 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전국체전 때도 친환경 녹색체전의 성격에 맞게 화약불꽃보다는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며 "세계 불꽃경연대회는 이같은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기후 도시 역행...내년 예산 전액 삭감"

여수시 "엑스포 홍보 위해 내년에도 개최 돼야"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여수 세계불꽃경연대회에 대해 시민과 관람객들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개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수시가 순천제일대학 관광 경영과에 의뢰한 용역 결과 '세계불꽃 경연대회를 내년에도 계속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91.6%로 나타났다.